

김삿비훈민가



[해제]

현전하는 <김대비훈민가>는 조선 제23대 순조의 비 순원왕후 김씨가 순조의 승하 후 지은 가사 2편이다. 1편은 남성에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화목하며, 부부간에 순종하며, 노인을 공경하고, 남녀간에 구별이 있어야 함 등을 훈계한 것이다. 모두 138구에 4·4조가 주조(主調)를 이루나 파격(破格)이 많다. 다른 1편은 부녀자에게 삼종행실(三從行實) 및 부부는 천지와 같음을 가르치고, 시부모를 공경하고, 투기(妬忌)를 금지하며,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지 말며, 외출(外出)을 경계한 것이다. <김대비부인훈민가(金大妃婦人訓民歌)>라고도 하는데, 이는 모두 49구로 된 짧은 가사로서, 역시 4·4조가 주조를 이룬다. 이 작품은 교훈가로서 주인공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여성이 마땅히 따라야 할 덕목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김대비란 인물이 훈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를 앞세워 불효가 가장 큰 죄악임을 경계하고 형제 우애 뿐만 아니라 사촌간의 화목도 강조하여 재물보다 형제 아낄 것을 경계하고 있다. 부부관계는 이성(二姓)이 상합하여 자손을 이어가는 것이니 그 정이 가장 중하다고 하였다.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부모봉양과 자녀양육·친척후대를 잘할 것이며, 조강지처는 소박(疏薄)하지 말고 화목하게 할 것을 더불어 당부한다. 노인을 공대하고 손님을 후대하며, 친구나 이웃과는 화목하게 지낼 것이며, 손님으로 방문할 때는 예의를 지킬 것과 남녀노소를 분별있게 대할 것 등 인간관계 전반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 밖에도 주색·물욕·사치를 삼가고 문필과 학업을 중시할 것을 훈계한다. 한편, 관리는 교만하지 말고 교민(敎民)을 잘할 것이며, 백성은 수령 방백(守令方伯)을 원망 말고 자기 허물을 생각하라고 가르친다.

[원문]

김대비훈민가

어와어와 빅성드라 이니말삼 들어보소
 일염의 어린빅성들 소문듯기 헛참흐다
 부모럴 천디흐면 악한손 나난이라
 나무적악 하지마소 문호 보전하기 드무니라
 스람의 큰적악이 불효이 더할손나
 횡실업난 조손두고 솟솔갓치 싸라가고
 횡실잇난 조손드런 본물가치 피여간다
 엇지흐 되올지여 자손으게 전할손나
 남모른다 횡치횡치말고 닌도리만 줄흐여라
 지물만 중케아라 형제닷틈 하지마소
 한기운을 타고나서 헛저절 먹고 조라난니
 골룩형제 괴송흐다 그안 중할손나
 조고만한 제물노셔 중한정이 머러간다
 형우제공 간디업고 원슈갓치 도야간다
 저디도록 불화타가 솜사촌의 전할노다
 형제스촌 조친후의 피초부모 썸을바다
 쏘다시 불순흐면 디디로 원슈갓다
 지물은 구름갓고 형제는 슈족갓다

스람이 슈족업고 일시들 어이하리
남으로 숨긴몸이 부부인정 관중하다
각성으로 삼겨나서 조손을 이어노코
먹고굶고 입고벗고 조나씩나 훈가지로
질기다가 죽근후의 피초 서로 훈고지로
도라가니 어와 이인정언 비할디 전혀업다
칠거지죄 업신후에 조강지처 소박마소
독숙공방 원망할제 기기 죄화되나
가산이 쇠피한니 조손이 성할손냐
부부셔로 화순하면 빈한도 면하나니
빅연히로 웃듬이라 부귀변화 관계하랴
향당은 막여치니 노인을 경덕하소
할말을 할지라도 조심하여 경덕하고
무시에 만년나마 가벗고 덕치마소
예법의 버셔나고 인스가 조흠손가
슈인스 훈난도리 접번하기 공경하소
문전의 오신손임 박덕하야 보닌후의
원근친구 머러지고 옥급선세 안이될가
조석 보난이웃 형제갓치 화순하소
유무간에 쉼니하여 급한일을 구조하소
먼덕일쪽 잇다히도 갓가온덕 잇질손야
친구을 차자가도 밧기셔 소리하냐
그췌인을 알기하고 청하거던 드러가셔
할말만 밧비하고 슈이쩌나 이러나소
손이오리 안조시면 덕접하기 조흠손냐
말하기도 만년마소 남보기도 지리하고
쓸말도 적건이와 망말하기 쉬우노다
남정 업난집의 일족왕니 하지마소
무례하 저스람들 철업시 출입하면
췌야로 마조안조 씨날줄 모로난고
저능비록 조하하나 누무소견 엇더할고
슈절과부 휘절하기 저른스람 타시로다
여닌이 가난길의 뒤을싸라 가지말고
큰기침 길계하야 등도라선 연후의사
스양하야 물너셔셔 종후하야 갈거시오
스람의 말도리난 예절붓텀 슬퍼보소
늘근스람 가난길 압셔셔 가지말고
체면하야 조로거러 뒤셔셔 갈거시라

장유가 차례업고 남여가 무별하면
사람이 사람닐들 금슈와 다를손냐
쥬식을 탐치마소 망신하기 쉽스오니
취중의 후든말리 쉰후의 우식으로다
남우기친 후지마소 질긴후의 썰디업고
직물도 탐지마소 욕심으로 어든직물
장구이 미들손냐
직물을 크게아라 스람을 천마소
버릇안든 조손드리 한스람만 스귄소냐
남과부디 뎡틈마소 분기에 싸우다가
술인하기 쉽스오니 남우시비 죠화마소
닉허물을 감출손냐
닉마암 증계후야 남무실레 말스소
남조가 도어나서 무순일을 광치할가
괴갑고 조흔보빅 글맛기 쏘잇난가
덕형도 글에잇고 예법도 글에잇고
영화도 글에잇고 사업도 능케 훌거시요
말하기도 아라 할거시요 중부의 할일리아
글받기 다시업닉
공명이 낫타나면 뉘라셔 천디후리
근종을 할지라도 자신지척 살피보소
절물씨 못둔시간 만니예 이룰손냐
빈천의 들지라도 장부쓰절 변치마소
어와세승 스람드라 밧마슬 아난냐
밧조흔줄 아라시면 먹글도리 후여보소
후나이임이 스람닐제 안이굼게 히건마난
전토업시 게울소냐 어이후야 먹글손냐
스람의 큰근본니 농스로 자칭후니
농스럴 잘못후면 삼동얼 어이후며
명춘에 전딜도럴 무어시로 밧칠손냐
친구의 직물거리 분명후기 후여쥬소
직물노 의승기난 예로붓텀 일너난니
남얼쏘겨 어든직물 조손의계 밧칠손냐
썩난스람 죄안되고 쏘기난니 악화로다
미욕한 저스람들 물욕에 쥬겨이서
쥬고만흔 직물노셔 디면후여 욕후난고
무단이 욕후난놈 부디부디 뎡치마소
악후스람 슈이죽고 제길쥬 안니로다

참난스람 덕이되고 천우신조 허난니라
시절리 샷치허야 인심이 위티허다
조흔의관 가진몸이 스람마다 활작시면
세속에 변한거시 그무어시 이실소냐
부모의 약간정노 장구이 미더찌니
일쥬의 꺾가 되온후의 집신도 귀할시고
저기가난 저부인닉 밧비밧비 가지말고
거기잠관 머물너셔 닉한말숨 드러보소
집이이셔 자힐적에 부모을 섬기다
조흔후에 출가허야 시부모을 효양하고
가장을 섬기기난 삼종형실 썻썻허니
부부난 천정이라
응당한 가증님이 가장니 썻을닌들
그가증을 어이허리
닉몸이 괴롭고 길것기논 그한손에 밍엿시니
하날갓치 중한일신 가장이 썻을닌면
말디답을 부디마소
첩으게 유세허고 박디허며 남운난니
발악말고 투시마소 그무엇 죠흠소냐
허날갓치 저부부도 말이지 못히거던
아모리 싸흠한들 속절리 이실소냐
제산만 다스리고 조위신묘 허여보소
가증이 청호기로 그디도록 히할소냐
문밧츄립 조로허여 닉몸천케 허지마소
무단이 할일업시 마을도난 저부인닉
살임은 잘못허고 이웃허물 허지마소
다른스람 만닌후의 닉허물도 하난이라
시비닷툼 허나니난 저근말도 큰말되니
닉밧먹고 닉웃입고 남익욕셜 듯잔말가
여조로 숨긴몸이 출입이 불길허다
출입을 할지라도 살피여서 아라허소
남정이 가논길익 압셔셔 가지말고
웃벗고 안지마소 형실익 버셔난니
남익소견 엇더할고 가증 효도허미
뉘손익 이실조냐
너부모을 섬기여도 효성으로 허엿스면
허날임이 감동허야 어진조손 점지허고
효성도 잇기이와 불효양지 그지업다

제스를 당하거던 반깁을 흘지라도
정결하게 증만하야 실시치 마라셔라
스람의 큰예절리 봉제스가 웃듬이라
가례을 슬피여서 공경하여 무러하고
두렵다 부인형실 사람으기 밋엇나니
넉몸의 맛튼이리 음식과 길숨이라
이받기 다른일런 쥬작을 못하거던
믹스를 흘지라도 시부모기 무러하소
가중이 쥬장이니 뉘스를 조심하소
그말뒤로 거행하소 나느김피 드러안조
세승스를 모르고 이시니
어와어린 빅성드라 소문듯기 헛참하다
넉몸이 이럿커던 교만만 능케마소
인의는 밤중갓고 의식만 중케아라
그른후의 효조효손 뉘집의 이실소냐
체면을 모로거던 윤기럴 어이아리
윤기럴 모른후의 숙맥불변 안일소냐
넉말숨 중케아라 경계하여 잇지마소
조심하여 드럿시면 일평심 이질소냐
어와세승 스람드라 효조효손 썬을바다
부모봉양 순케하소
도침스촌 율계말고 고륙으로 숨긴인칭
그어디가 편할소냐
효행열 모라거던 군조럴 칭각하면
효심이 절노나닉
세로운 빅성드라 헛되이 들건마는
원슈가 원슈로다 훈민이 원슈로다
세월되 여류하여 놀거지면 곳분이라
븐플은 연연이 피건마난 쥬근이칭 스라올가
부모암히 효성하고 조손이게 은덕하여
사라셔난 근심하고 쥬거셔는 후취되니
삿조그려 다시보면 후취홀일 업실소냐
천륜을 모라거던 오륜을 어이아리
어와 창심드라 면제 면제하라

[현대역]

어와어와 백성(百姓)들아 이내 말씀 들어보소
일념(一念)1)에 어린 백성들 소문듣기 해참(駭慚)하다2)
부모를 천대(賤待)하면 악한 손 나느니라
남의 적악(積惡)3) 하지마소 문호(門戶)4) 보전(保全)하기 드무니라
사람의 큰 적악(積惡)이 불효(不孝)에 더할쏘나
행실(行實)없는 자손(子孫)두고 숫돌5)같이 따라가고
행실(行實)있는 자손(子孫)들은 붓물6)같이 피어간다
어찌한 죄(罪)를 지어 자손에게 전할쏘나
남모른다 행치행치말고 내 도리만 잘하여라
재물만 중(重)케 알아 형제(兄弟)다툼 하지마소
한 기운을 타고나서 한 젓을 먹고 자라나니
골육형제(骨肉兄弟)7) 괴상(怪狀)하다 그 아니 중(重)할쏘나
조그마한 재물로써 중(重)한 정이 멀어간다
형우제공(兄友弟恭)8) 간데 없고 원수(怨讐)같이 되어간다
저대도록9) 불화(不和)타가 삼사촌(三四寸)에 전할로다
형제(兄弟)사촌(四寸) 자란 후에 피차(彼此) 부모 본을 받아
또 다시 불순(不順)하면 대대로 원수같다
재물(財物)은 구름같고 형제(兄弟)는 수족(手足)같다
사람이 수족(手足)없고 일시(一時)들 어이하리
남으로 삼긴10) 몸이 부부(夫婦)인정 관중(款重)하다11)
각성(各姓)으로 삼겨나서12) 자손(子孫)을 이어놓고
먹고 굶고 입고 벗고 자나깨나 한가지로
즐기다가 죽은 후에 피차(彼此) 서로 한 곳으로
돌아가니 어와 이 인정(人情)13)은 비할 데 전혀 없다
칠거지죄(七去之罪)14) 없는 후에 조강지처(糟糠之妻)15) 소박(疏薄)16)마소
독수공방(獨守空房)17) 원망할 제 개개 죄화(罪禍)18)되나
가산(家産)19)이 쇠파(衰敗)20)하니 자손이 성할쏘나
부부 서로 화순(和順)21)하면 빈한(貧寒)22)도 면(免)하나니
백년해로(百年偕老)23) 으뜸이라 부귀번화(富貴繁華)24) 관계하라
향당(鄉黨)은 막여치니25) 노인을 경대(敬待)하소
할말을 할지라도 조심하여 경대(敬待)26)하고
무시(無時)27)에 만나나마 갓 벗고 대(對)치마소
예법(禮法)에 벗어나고 인사(人事)가 줄을손가
수인사(修人事)28) 하는 도리 접빈(接賓)29)하기 공경(恭敬)하소
문전(門前)에 오신 손님 박대(薄待)하여30) 보낸 후에
원근(遠近)31)친구 멀어지고 욕급선세(辱及先世)32) 아니 될까
조석(朝夕)33) 보는 이웃 형제같이 화순(和順)하소

유무(有無)간에 추대(推貸)34)하여 급한 일을 구조(救助)35)하소
 먼데 일족(一族)36) 있다해도 가까운 데 있을쏘냐
 친구를 찾아가도 밖에서 소리하여
 그 주인을 알게 하고 청하거든 들어가서
 할말만 바빠하고 수이37) 떠나 일어나소
 손이 오래 앉았으면 대접하기 좋을쏘냐
 말하기도 많이 마소 남보기도 지리하고38)
 쓸 말도 적거니와 막말하기 쉽도다
 남정(男丁)39) 없는 집에 일족(一族)왕래(往來) 하지마소
 무례(無禮)한 저 사람들 철없이 출입(出入)하면
 주야(晝夜)로 마주 앉아 떠날 줄 모르난고
 저는 비록 좋아하나 남의 소견(所見) 어떠할고
 수절(守節)40)과부(寡婦) 훼손(毀節)41)하기 저런 사람 탓이로다
 여인이 가는 길에 뒤를 따라 가지말고
 큰기침 길게 하여 등 돌아선 연후에야
 사양하여 물러서서 종후(從厚)42)하여 갈 것이오
 사람의 말 도리(道理)는 예절부터 살펴보소
 늙은 사람 가는 길 앞서서 가지말고
 체면하여 자로 걸어 뒤서서 갈 것이라
 장유(長幼)43)가 차례없고 남녀(男女)가 무별(無別)44)하면
 사람이 사람인들 금수(禽獸)45)와 다를소냐
 주색(酒色)46)을 탐(貪)치마소 망신(亡身)하기 쉽사오니
 취중(醉中)에 하던 말이 깬 후에 우사(愚事)47)로다
 남의 기친 하지마소 즐긴 후에 쓸데 없고
 재물도 탐치마소 욕심(慾心)으로 얻은 재물
 장구(長久)히48) 믿을소냐
 재물을 크게 알아 사람을 천(賤)치마소
 버릇 안든 자손들이 한사람만 사귄소냐
 남과 부디 다통마소 분기(憤氣)49)에 싸우다가
 살인(殺人)하기 쉽사오니 남의 시비(是非) 좋아마소
 네 허물을 감출소냐
 내마음 중케 하여 남의 실례(失禮) 말 마소
 남자가 되어나서 무슨 일을 광채(光彩)50)할까
 기갑고 좋은 보배 글밖에 또 있는가
 덕행(德行)51)도 글에 있고 예법(禮法)도 글에 있고
 영화(榮華)52)도 글에 있고 사업(事業)53)도 능케 할 것이요
 말하기도 알아 할 것이요 장부(丈夫)의 할 일이야
 글밖에 다시 없네

공명(公明)54이 나타나면 뉘라서 천대(賤待)하리
 근종(跟從)55을 할지라도 자신지책(資身之策)56 살펴보소
 젊을 때 못든 세간 만래(晩來)57에 이를소냐
 빈천(貧賤)58에 들지라도 장부(丈夫) 뜻을 변치마소
 어와 세상 사람들아 밥맛을 아느냐
 밥 좋은 줄 알았으면 먹을 도리 하여보소
 하나님아 사람낼 제 아니 굶게 했건마는
 전토(田土)59없이 게울소냐 어이하여 먹을소냐
 사람의 큰 근본이 농사(農事)로 자생(自生)60하니
 농사(農事)를 잘못하면 삼동(三冬)61을 어이하며
 명춘(明春)62에 전대(轉貸)63도를 무엇으로 바칠손가
 친구의 재물거래 분명(分明)하게 하여 주소
 재물로 의상키는64 예로부터 일켰나니
 남을 속여 얻은 재물 자손에게 미칠소냐
 속는 사람 죄 안되고 속이는 이 악화(惡化)65로다
 미혹(迷惑)66한 저 사람들 물욕(物慾)에 잠겨있어
 조그마한 재물로써 대면(對面)하여 욕하는고
 무단히67 욕하는 놈 부디부디 대(對)치마소68
 악한 사람 쉽게 죽고 제 길조(吉兆)69 아니로다
 참는 사람 덕이 되고 천우신조(天佑神助)70 하느니라
 시절(時節)이 사치(奢侈)하여 인심(人心)이 위태하다
 좋은 의관(衣冠) 가진 몸이 사람마다 활작시면
 세상에 빈한(貧寒) 것이 그 무엇이 있을소냐
 부모의 약간 전토(田土) 장구(長久)히 믿었더니
 일조(一朝)71에 패가(敗家)72 되온 후에 짚신도 귀할시고
 저기 가는 저 부인네 바빠바빠 가지말고
 거기 잠깐 머물러서 내 한말씀 들어보소
 집에 있어 자랄 적에 부모를 섬기다
 자란 후에 출가(出嫁)73하여 시부모(媳父母)를 효양(孝養)74하고
 가장(家長)을 섬기기는 삼종(三從)75행실(行實) 떳떳하니
 부부는 천정(天定)76이라 응당(應當)한 가장(家長)님이
 가장이 성을 낸들 그 가장을 어이하리
 내 몸이 괴롭고 즐겁기는 그 한손에 매였으니
 하늘같이 중한 일신(一身) 가장이 성을 내면
 말대답을 부디마소
 첩에게 유세(有勢)77하고 박대(薄待)하며 남 웃나니
 발악말고 투시(妬視)78마소 그 무엇 좋을소냐
 하늘같이 저 부부도 말리지 못하거던

아무리 싸움한들 속절이 있을소나
 재산만 다스리고 자위신묘 하여보소
 가장이 청하기로 그대도록 해(害)할소나
 문밖 출입 자주하여 내몸 천케 하지마소
 무단히 할일없이 마을 도는 저 부인네
 살림은 잘못하고 이웃 허물 하지마소
 다른 사람 만난 후에 내 허물도 하느니라
 시비(是非)다툼 하는 이는 적은 말도 큰 말되니
 내 밥 먹고 내 옷입고 남의 욕설 듣잔말가
 여자로 생긴 몸이 출입(出入)이 불길(不吉)하다
 출입을 할지라도 살피어서 알아하소
 남정(男丁)이 가는 길에 앞서서 가지말고
 옷벗고 앉지마소 행실(行實)에 벗어나니
 남의 소견(所見) 어찌할꼬 가장 효도(孝道)함이
 뉘손에 있을소나
 네 부모를 섬기어도 효성(孝誠)으로 하였으면
 하늘님이 감동하여 어진 자손 점지(點指)하고
 효성도 있거니와 불효(不孝) 양재(殃災)79) 그지없다
 제사(祭祀)를 당하거든 반갱(飯羹)80)을 할지라도
 정결(精潔)하게 장만하여 실시(失時)81)치 말아서라
 사람의 큰 예절이 봉제사(奉祭祀)82)가 으뜸이라
 가례(家禮)83)를 살피어서 공경(恭敬)하여 물어하고
 두렵다 부인 행실(行實) 사람에게 매였나니
 내 몸에 맡은 일이 음식과 길쌈이라
 이밖에 다른 일은 주작을 못하거든
 매사(每事)를 할지라도 시부모께 물어하소
 가장이 주장(主掌)84)이니 매사를 조심하소
 그 말대로 거행(舉行)하소 나는 깊이 들어 앉아
 세상사(世上事)를 모르고 있으니
 어와 어린 백성들아 소문듣기 해참(駭慚)하다
 내몸이 이렇거든 교만(驕慢)만 능케마소
 인의(仁義)는 밤중같고 의식만 중케 알아
 그른 후의 효자(孝子)효손(孝孫) 뉘집에 있을소나
 체면을 모르거든 윤기(倫紀)85)를 어이 알리
 윤기(倫紀)를 모른 후에 속맥불변(菽麥不辨)86) 아닐소나
 내말씀 중케 알아 경계(警戒)하여 잊지마소
 조심하여 들었으면 일평생(一平生) 잊을소나
 어와 세상 사람들아 효자(孝子)효손(孝孫) 본을 받아

부모봉양(父母奉養) 순(順)케하소 도생사촌 울게 말고
골육(骨肉)87)으로 생긴 인생 그 어디가 편할소냐
효행(孝行)을 모르거든 군자(君子)를 생각하면
효심(孝心)이 절로나네
새로운 백성들아 헛되이 들건마는
원수가 원수로다 훈민(訓民)88)이 원수로다
세월(歲月)도 여류(如流)하여89) 늙어지면 그 뿐이라
봄풀은 년년(年年)이 피건마는 죽은 인생 살아올까
부모앞에 효성하고 자손에게 은덕(隱德)90)하여
살아서는 근심하고 죽어서는 후회되니
따자그려 다시 보면 후회할 일 없을소냐
천륜(天倫)을 모르거든 오륜(五倫)을 어이 알리
어와 창생(蒼生)91)들아 면죄(免罪) 면죄하라

[각주]

- 1) 일념(一念) : 한결같은 마음. 또는 오직 한 가지 생각.
- 2) 해참(駭慚)하다 : 매우 괴상하고 야릇하여 남부끄럽다는 뜻.
- 3) 적악(積惡) : 남에게 악한 짓을 많이 함.
- 4) 문호(門戶) : 집으로 드나드는 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집안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문벌(門閥).
- 5) 솟돌 :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맷돌(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의 경북 방언.
- 6) 붓물 : 보에 권 물. 또는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
- 7) 골육형제(骨肉兄弟) : 핏줄이 같은 형제. 또는 가까운 형제와 같은 거래붙이.
- 8) 형우제공(兄友弟恭) :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에 서로 우애 깊게 지냄을 이르는 말.
- 9) 저대도록 : ‘저다지(저러한 정도로)’의 잘못.
- 10) 삼긴 : 삼기다. ‘생기다’의 옛말.
- 11) 관중(款重)하다 : 요긴하고 중요하다는 뜻.
- 12) 삼겨나서 : 생겨나서의 뜻.
- 13) 인정(人情) :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 14) 칠거지죄 : 칠거지악(七去之惡)의 다른 말. 지난날 유교(儒敎) 도덕(道德)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조건(條件)을 이르는 말. 곧 부모(父母)에게 불순함(不順舅姑), 자식(子息)이 없음(無子), 음행(淫行), 투기(妬忌), 나쁜 병(惡病), 말썽이 많음(口舌), 도둑질(盜竊)을 이룸.
- 15) 조강지처(糟糠之妻) :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에 고생을 함께 겪어 온 아내를 이르는 말. 《후한서》에 나오는 말.
- 16) 소박(疏薄) : 아내나 처를 박대함.
- 17) 독수공방(獨守空房) : 빈방에서 혼자 잠이란 뜻으로, 부부(夫婦)가 서로 별거(別居)하여 여자(女子)가 남편(男便) 없이 혼자 지냄을 뜻함.
- 18) 죄화(罪禍) : 죄를 저질러 받는 재화(災禍).
- 19) 가산(家産) : 한 집안의 재산.
- 20) 쇠파(衰敗) : 쇠하여서 패망(敗亡)함. 늙어서 기력(氣力)이 약(弱)해짐.
- 21) 화순(和順) : 온화하고 양순함.
- 22) 빈한(貧寒) : 살림이 가난하여 집안이 쓸쓸함.
- 23) 백년해로(百年偕老) :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
- 24) 부귀번화(富貴繁華) :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번성하고 화려함.
- 25) 향당은 막여치니 : 향당막여치(鄉黨莫如齒). 부로(父老)가 살고 있는 고을에서는 벼슬의 높낮이나 가문의 지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존장(尊長)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뜻.
- 26) 경대(敬待) : 공경하여 대접함.
- 27) 무시(無時) : 무상시(無常時). 일정한 때가 없음.
- 28) 수인사(修人事) : 인사를 차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함.
- 29) 접빈(接賔) : 접객(接客). 손님을 접대함.
- 30) 박대(薄待)하여 : 푸대접함. 정성을 들이지 않고 아무렇게나 대접을 함.

- 31) 원근(遠近) : 먼 곳과 가까운 곳. 또는 그곳의 사람.
- 32) 옥급선세(辱及先世) : 옥급선조(辱及先祖)의 다른 말. 자손의 잘못된 욕이 조상에게 미침.
- 33) 조석(朝夕) : 아침과 저녁을 아울러 이르는 말. 썩 가까운 앞날. 또는 어떤 일이 곧 결판나거나 끝장날 상황.
- 34) 추대(推貸) : 돈을 돌려서 꾸어 주거나 꾸어 씬. 취대(取貸).
- 35) 구조(救助) : 재난 따위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 36) 일족(一族) : 조상이 같은 겨레붙이. 또는 같은 조상의 친척.
- 37) 수이 : 쉽게, 빨리.
- 38) 지리하고 : 지루하고(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같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어 따분하고 실증이 남)의 잘못.
- 39) 남정(男丁) : 열다섯 살이 넘은 사내. 남정네.
- 40) 수절(守節) : 절의(節義), 정절을 지킴.
- 41) 훼손(毀節) : 절개나 지조를 깨뜨림.
- 42) 종후(從厚) : 어떤 일을 너무 박하지 아니하게 후한 편으로 좇아서 함.
- 43) 장유(長幼) : 어른과 어린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 44) 무별(無別) : 구별이 없음.
- 45) 금수(禽獸) : 날짐승과 길짐승이라는 뜻으로, 모든 짐승을 이르는 말. 행실이 아주 더럽고 나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46) 주색(酒色) : 술과 여자를 아울러 이르는 말.
- 47) 우사(愚事) : 어리석은 일.
- 48) 장구(長久)히 : : 매우 길고 오래.
- 49) 분기(憤氣) : 분한 생각이나 기운.
- 50) 광채(光彩) : 찬란한 빛.
- 51) 덕행(德行) : 어질고 너그러운 행실.
- 52) 영화(榮華) :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 53) 사업(事業) :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 또는 그 일.
- 54) 공명(公明) : 사사로움이나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명백함.
- 55) 근종(跟從) : 윗사람을 모시고 뒤를 따라감.
- 56) 자신지책(資身之策) : 자기 한 몸의 생활을 꾀하는 계책.
- 57) 만래(晩來) : 늦은 후.
- 58) 빈천(貧賤) : 가난하고 천함.
- 59) 전토(田土) : 논과 밭을 아울러 이르는 말.
- 60) 자생(自生) :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 61) 삼동(三冬) : 추운겨울의 석 달.
- 62) 명춘(明春) : 내년 봄.
- 63) 전대(轉貸) : 빌리거나 꾸는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꾸어 줌. 남을 거쳐서 빌려 주거나 꾸어 줌.
- 64) 의상키는 : 의가 상하기는 이라는 뜻.

- 65) 악화(惡化) : 일의 형세가 나쁜 쪽으로 바뀜.
- 66) 미혹(迷惑) :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정신이 헛갈리어 갈팡질팡 헤매.
- 67) 무단히 : 사전에 허락이 없이. 또는 아무 사유가 없이.
- 68) 대치마소 : 대(對)하지 마소.
- 69) 길조(吉兆) : 좋은 일이 있을 조짐.
- 70) 천우신조(天佑神助) :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도움. 또는 그런 일.
- 71) 일조(一朝) : 하루 아침이라는 뜻으로, 갑작스럽도록 짧은 사이를 이르는 말.
- 72) 패가(敗家) : 재산을 다 써 버려 집안을 망침.
- 73) 출가(出嫁) : 처녀가 시집을 감.
- 74) 효양(孝養) : 아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함.
- 75) 삼종(三從) : 삼종지도(三從之道).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
- 76) 천정(天定) : 하늘이 정함.
- 77) 유세(有勢) : 자랑삼아 세력을 부림.
- 78) 투시(妬視) : 질시(嫉視). 시기하여 봄.
- 79) 양재(殃災) : 재앙(災殃).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
- 80) 반갱(飯羹) : 밥과 국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1) 실시(失時) : 때를 놓침.
- 82) 봉제사(奉祭祀) : 봉사(奉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 83) 가례(家禮) : 한 집안에서 지키는 예법.
- 84) 주장(主掌) :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또는 그런 사람.
- 85) 윤기(倫紀) : 윤리와 기강(紀綱)을 아울러 이르는 말.
- 86) 속맥불변(菽麥不辨) : 콩인지 보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사리 분별을 못하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을 이르는 말.
- 87) 골육(骨肉) : 뼈와 살을 아울러 이르는 말. 부자, 형제 등의 육친(肉親).
- 88) 훈민(訓民) : 백성을 가르침.
- 89) 세월도 여류하여 : 세월여류(歲月如流).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다는 뜻으로, 세월이 매우 빨리 흘러감을 이르는 말.
- 90) 은덕(隱德) : 남이 모르게 베푸는 덕행.
- 91) 창생(蒼生) : 세상의 모든 사람.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